

## 결 의 문

득과할 수 없는 제국주의 근성 침략적 망언을 단호히 저지하자!

우리 22만 충주시민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지난날의 역사적 과오를 뉘우칠 줄 모르고 제국주의 향수와 침략적 근성을 버리지 못한 일본국의 방자함과 오만함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의원 30명은 22만여 시민의 뜻을 모아 억지와 생트집으로 분쟁을 일삼는 저들의 망국적 망발을 규탄함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행위에 대한 석고대죄도 부족한 마당에 반성은 커녕 망발을 일삼는 일본정부를 엄중 경고한다.
1. 동구권은 물론 서방의 모든 국가를 포함한 세계인류사에서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이 마당에 일본 총리와 외상은 일방적인 망발을 즉각 취소하라.
1. 국제질서를 외면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 및 주권침해를 정중히 사죄하라.
1. 침략으로 주권을 빼앗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 땅이라고 선포했던 과거 주장의 가증스러움을 만천하에 고발한다.
1. 일본이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한다 하더라도 독도영유권은 우리에게 있으며, 분쟁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다.

1996. 2.

충주시의회의원 일 동